

수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16:1-3)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고서 천기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 때가 그들의 메시야가 올 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분명히 메시야가 오실 때에 관한 표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 예루살렘을 증진하라는 조서가 있는 날부터 483년이 지나고 나면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알아야 할 것, 분명히 드러난 표적을 무시하고 분별치 못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라”(16:4)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결국 예수님은 12장에서 하셨던 말씀대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 하였도다 하거늘”(16:5-7)

우리는 이미 누룩이 언급될 때는 항상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데 이 경우에는 외식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우리가 떡을 잊고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떠나 갈릴리 윗쪽 지방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16:13-18)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을 뜻하므로 ‘바요나 시몬아’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또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셨을 때의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로서 ‘작은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큰 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11에서 “이 닦아 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베드로라는 터를 주장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교회의 터가 아니었다는 것은 말씀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곧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진정한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이같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그런 가운데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십니다. 자연스러운 것 속에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감수성이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무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찾아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어렵고 더 중요한 일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분별해 낼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환상인지? 이것을 분별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의식에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영이 우리 의식에 증거할 때 마치 한 생각이나 의식이 우리 속에서 생겨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서 한 영감이 발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16:19)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실체, 즉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권세를 주셨고 또한 그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1장을 살펴보면 주님의 때에 맞추어 예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맏인 나귀와 나귀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분은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시며 나귀의 등에 타셨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이었으므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 이유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로마의 멍에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16:22-23)

베드로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한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계시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베드로는 육적인 생각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즉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문장 그대로 이해하면 ‘자신을 보존해야 합니다 쉬운 길을 택하십시오 십자가를 저서는 안 됩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피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는 결코 구속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단은 항상 십자가를 피해 쉬운 길을 택하라고 중용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인생을 즐기라고, 너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 사람, 옛 성품은 이미 십자가에 못박혔으므로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네 자신을 아끼라, 십자가를 피해 육체를 따라 살며 즐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므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시에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먼저 성경말씀에 견주어 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가 살펴보고 무엇이든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관성이 있으시며 무슨 일을 하시든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라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령을 좇는, 예수님 안에서의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육신적 삶은 십자가 위에서 못박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육체를 좇아 살면서 동시에 성령을 좇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좇던 옛 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므로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바를 자기도 이해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에 대해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이상형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저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내가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 가야 할 삶입니다’라고 동의는 하면서도 우리 육체의 연약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은 하지 않고 내가 결코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말씀을 깊이 살펴봅시다. 로마서 7장 후반에서 바울은 어떠한 자아구제책도 소용이 없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더 이상 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간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외부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한 몸부림을 더 이상 칠 수 없을 때, 즉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을 시작하게 될 때, 바울이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한 고백에 우리도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에 속박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내가”라는 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성령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즉 자신의 옛 성품, 옛 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힌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삶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16:25)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혼자 힘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으려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16:26)

만약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달성할 수도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것이라면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은 전세계보다도 귀합니다. 만약 전세계를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래에서 전세계를 택하는 대신 목숨을 내어 준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영혼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영혼을 주고 다른 무엇을 구하실 분이 계십니까? 저는 자주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어떤 것과 바꾸는 데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참으로 가치없는 헛된 것과 바꿉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실에 놀랄 뿐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16:27)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박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16:28)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17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절 구분이 잘못된 곳들 중 하나로서 28절 내용이 17장 1절 이하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장을 끊으려면 27절에서 끊는 편이 훨씬 바람직했을 것입니다.